3 - APR 11 1961
COPY

화살

1960년 5월 하반호 (126)

안 창수 그림

쌍마 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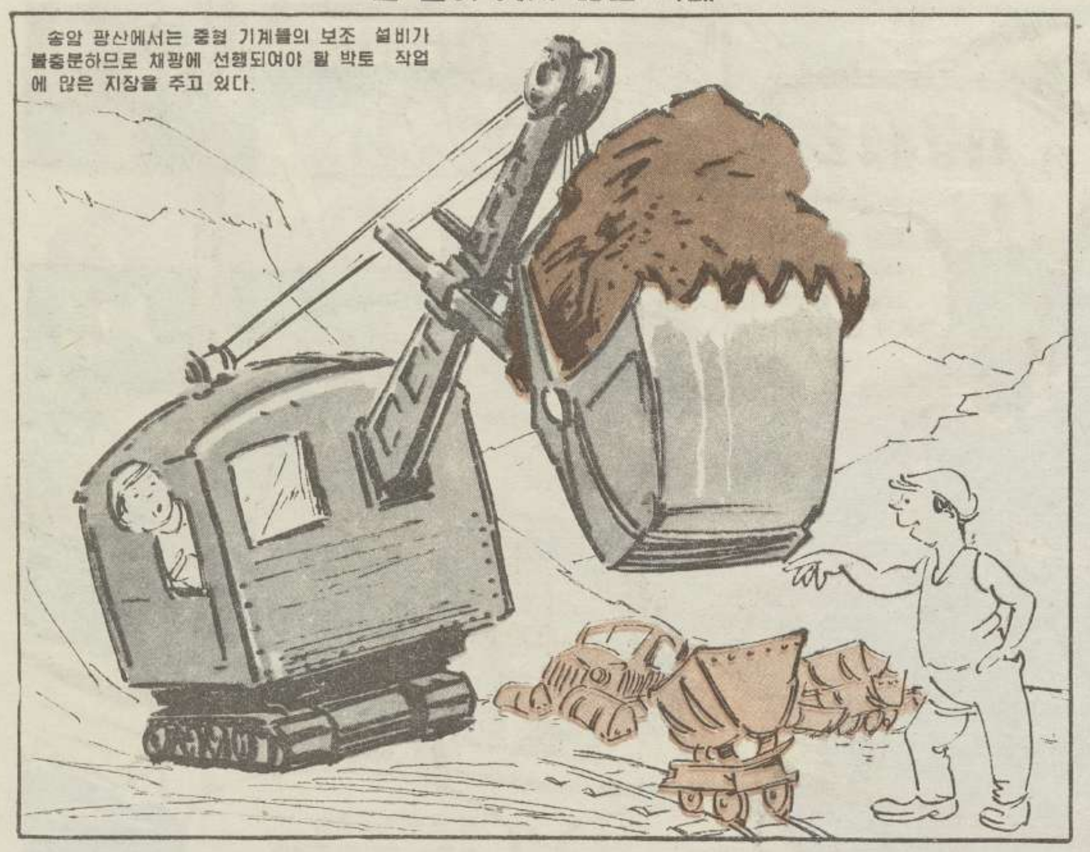
흥 종호 그림

두개 학교에서 배운다

송 용남 그림

김책 앞 바다에서

손 발이 맞지 않는 짝패



송암 광산에서는 중형 기계들의 보조 설비가 불충분하므로 채광에 선행되어야 할 박토 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자동차나 광차를 제때에 보장해야 이 박토를 빨리 처리 할께구 엑스까와똘도 쉬는 시간이 적을게 아니요
—낸들 어떻게 하겠소. 지도부에서 관심이 없으니……

송 시엽 그림

《맥 빠진 돌격》

상농 광산에서는 분기말 증산 돌격과 월말 증산 돌격을 거듭했으나 기계들만 맥 빠졌을 뿐 생산 성과는 오르지 않았다.

조가동갱에서 마지 못해 돌아가는 200마력 공기 압축기 동태를 살피고 있던 운전공은 허기찬 압축기가 기진 맥진해서 멈추게 되면 애타서 하는 말이

《이놈의 기계가 사람의 부축을 받고 돌게 됐으니 인제는 압축기 운전공도 허약한 너를 붓들고만 있어야할 판이로구나…》

그는 압축기를 지켜 섰다가 열이 나면 멈춰 세우고 열이 식은 다음에야 움직이도록 부축을 하면서 생산을 보장하는 판이였다.

맥 빠진 압축기와 운전공은 일심 협력으로 생산 미달이 걱정되여 애를 썼지만 허약해진 공기 압축기의 힘에는 한도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압축기는 있는 힘을 다 빼다 못해 락을 못 보고 자기 운명 을 끝마치는 것도 있었다.

《품위 높은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외화 원천을 확대하자》고 장담하던 선광 직장장도 애타서 공무 동력부에 불이낳게 뛰여 왔다.

《부장 동무! 선광장 3 피—트 콩크릿샤 고장을 어떻게 고쳐 놓아서 기계가 한참씩 돌다가는 멋군 합니까?》

공무 동력 부장은 고장난 기계를 완전 무결하게 수리하지 않고 한 국부만 땜질한 자기의 무책임성을 뉘우칠 대신에 단장 선광 직장장을 닦아 세웠다.

《여보! 공무부 탓만 할게 뭐요? 그렇게 든든히 땜질했어도 말을 안들으면 데 수리에 넘겨 버리면 될게지…》

설비 시설에 대하여 공무 동력 직장의 책임성이 이렇게 엷어지게 되자 채광과 선광 부문에서 동지적 방조보다 교대 본위주의가 더 심해지게 되였다.

이래서 생산에서는 어려운 국면을 뚫고 나아갈 길이 점점 더 막혔다.

선광장에서는 조쇄기와 마광기 메달의 예비가 떨어질 때까지 이것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3호 마광기는 월말 증산 돌격에 참가했다가 괴데까지 달아 끊어져 며칠씩 가동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그제서야 선광장에서는 기계를 세워 놓고 예비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는 투쟁이 전개되였다.

명절 맞이 증산 돌격 운동을 총화하는 날이였다.

선광 부문과 채광 부문에서는 돌격 바람에 맥 빠진 기계들을 수리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냅다 몰면 광산의 심장이 멎을 념려가 있다고 수다한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기계의 예비 부속을 많이 장만하고 계획적 예방 보수를 정상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와 압축 공기 빠이프를 늘여 주면 착암기를 채광면에 쉽게 댈 수 있다는 의견들은 당장 막히고 있는 생산을 타개하는데 절실한 요구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이런 요구를 들어 보자 마자 코'방귀를 뀠다.

《동무들은 지금 유색 금속광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가 얼마나 긴장한 때인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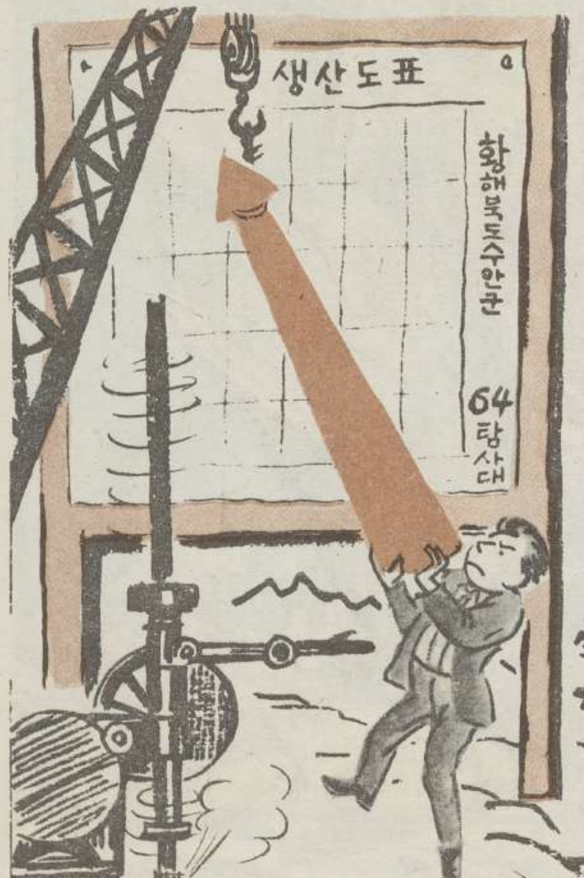
채굴장이 없어서 여기 저기 찾아 다니면서 광석을 얻어 보는 판에 뭐요! 뭐요! 하고 력량을 분산시킬 작정이니 광석은 어떻게 캔단 말이요?…》

력량을 눈앞의 생산에 〈 집중〉하기 위해서 있는 설비는 아무리 낡은 것이라도 죄다 동원해서 생산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지배인의 결심은 〈확고 부동〉하였다.

지배인의 이런 〈현명〉한 조치와 광산을 전망성 있게 관리 운영할 〈계획〉에 의해서 탐광 굴진 계획은 66.9%, 탐광 계획은 52.2%란 놀라운 수'자를 기준으로 생산에서는 계속 심한 파동성을 일으키고 있다.

서 득창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황해 북도 수안군 64 탐사대를 비롯한 일부 탐사 일'군들은 시추에서 코아가 잡혔던 안잡혔던 또 그를 통하여 지하 심부의 지질 상태를 파악했던 못했던 거기에는 관계 없이 굴진에서 메터 수를 높이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탐사 기구들의 애원

평남도 지질 탐사단
리 광일 그림

일부 일'군들은 야외를 구체적으로 탐사하여 과학적인 지질도를 작성할 대신에 책상 우에서 허위적인 지질도를 작성 하고 있는 데로부터 광량 확보와 시추 굴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동심이 앞섰다

최 영근 그림

—우리도 아저씨들처럼 손으로 싣자.
—싫어! 기계로 실어야 돼…

굼뜨기 내기라면?

최 영근 그림

창도 광산과 송암 광산에서는 생산이 아주 굼뜨게 진행되고 있다.

거리에서

송 시엽 그림

전화통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될텐데……

함남도 함흥시 성남동 31반 전 광명 그림

―교환! 교환! 부기부에 넣어 주시요

―예 이야기 하십시요

세면장은 아닌데-

평양 룡성 식료 공업 학교 박 찬갑 그림

어느 나라 미인들일가?

홍 종호 그림

말과 딴판이다

하성 광산 엄 병화 그림

림시 조치

원산 남산 중학교 김 종재 그림

길가에서

정주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 조 운석 동무는 도에 올라 가는 길에 한 신문사 기자와 길 동무를 하게 되였다.

《정주군이 어떻습디까? 일이 잘 됩디까?》

《글쎄 군에서 내려 가긴 하는데 자주 내려만 가서 뭘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되려 성가시게만 굴드만요》

《왜요?》

《글쎄 군 위원장은 농사 일을 채 알지도 못하는 지도원들을 조합에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조합에서 군 지도원에게 로력일 평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하겠는가 물은 즉

〈로력의 질과 량에 따라서 정확히 측정해서 하면 되오. 구체적인 것은 동무네가 직접 일해 보면서 조합 실정에 알맞게끔 조절하시우〉하고는 더 물을가바 딴데로 꽁무니를 뺐다고 합니다.》

군 위원장은 얼굴을 찌프렸다.

《읍 협동 조합에도 지도원들이 여러번 나갔었지만 실무가 어려 관리 위원회에 들락날락하거나 여기 저기 돌아 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랭상모판에 물도 주지 않았고 또 이따금씩 모판 문짝을 열어 바람을 쏘이지 않아서 모판이 모두 터지고 모가 몸이 나지 않아 절반 밖에 못쓰게 될 때까지 바로 잡아 줄 수 없었지요. 그래 불야불야 륙상모를 붓긴 했지만 랭상모만 하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상단리에서는 옥수수와 보리 종자를 소독도 안하고 심었지…그런데도 군 위원장은 조합에서 일이 어떻게 되고 지도원들이 어떻게 일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답니다.》

군 위원장은 흠칫 했다. 그래 급히 이렇게 말했다.

《군 위원장이 바빠서 그렇겠지요. 그렇게야 형식적으로 지도하겠소》

《아닙니다. 군 위원장 동무가 금년 3월까지 일곱번을 리에 내려 갔답니다. 그러나 그건 대개 도 지도 일'군들이 나왔을 때 안내하노라고 하루씩 나갔던 거지요. 한번은 어느 리에 나갔는데 작업 반장이 군 위원장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튿날 관리 위원회에 달려 가니까 벌써 가버렸다는 겁니다.》

군 위원장은 불시간에

《아니 내가…》하다 흠칫 입을 다물었다.

《그만 하시우. 다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일 없습니다. 부식물 공급하는 사업도 형식적으로 조직해서 생산 기관과 판매 기관이 서로 값이 맞지 않아 식료품이 상점에 나오지 못하구…》

군 위원장은 더 참지 못해

《동무, 내가 사실은 정주군 위원장이오》 하고 말하려는데 기자가 그 때

《군 위원장 동무를 만나지 못한게 유감입니다. 직접 만났더면 비판을 해 드리려 했는데》하는 바람에 하려던 말이 흠칫 들어가고 말았다.

《남양리에도 지도원이 여러번 내려 갔댔지요. 그런데 그 조합에서는 랭상모판 문짝을 만들라고 종이까지 주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100반보에나 낼 물모를 부었드만요. 그리고 원봉리 같은 데서는 봄 소채 파종 계획을 10% 밖에 못했습니다. 물론 조합 일'군들도 일을 잘못했지만 거기에 나간 지도원은 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어느 부위원장 동지가 지도원들에게, 여덟 가지 과업을 가지고 두개 리씩 나가 사업을 조직하는 데 이틀 동안에 끝마치고 돌아 오라고 했답니다. 사실 이틀 동안에는 통계도 미처 잡지 못할 형편이였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에 하고 오라고 하긴 하고, 그래서 어느 한 약바른 지도원이 사업 조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관리 위원장에게 독촉해서 제꺽 통계만 해 가지고 올라왔답니다. 그런즉 부위원장은

〈좋소. 동무가 일등이오〉하고 그를 칭찬하며 만족해 했답니다. 이것이 다 형식적으로 지도하는 위원장의 사업 방법에서 영향을 받은 거지요》

군 위원장은 더 들을 수가 없었다.

《동무, 내가 위원장을 만나 고치도록 잘 이야기할테니 다른 사람에게는 위원장 흉을 보지 마오》

그리고는 다른 자리로 달아 나고 말았다.

리 운봉

두 손으로 받아 　두 손으로 마시고 　누굴 탓하나?

하성 광산 엄 병화 그림

찌'병쟁이

함남 수동군 운곡 직장 영화관
리 원재 그림

우리 제도 만세

행복한 장래 자신이 결정하고

혁신과 기적 자신이 창조한다

무상 치료 그 은혜 태산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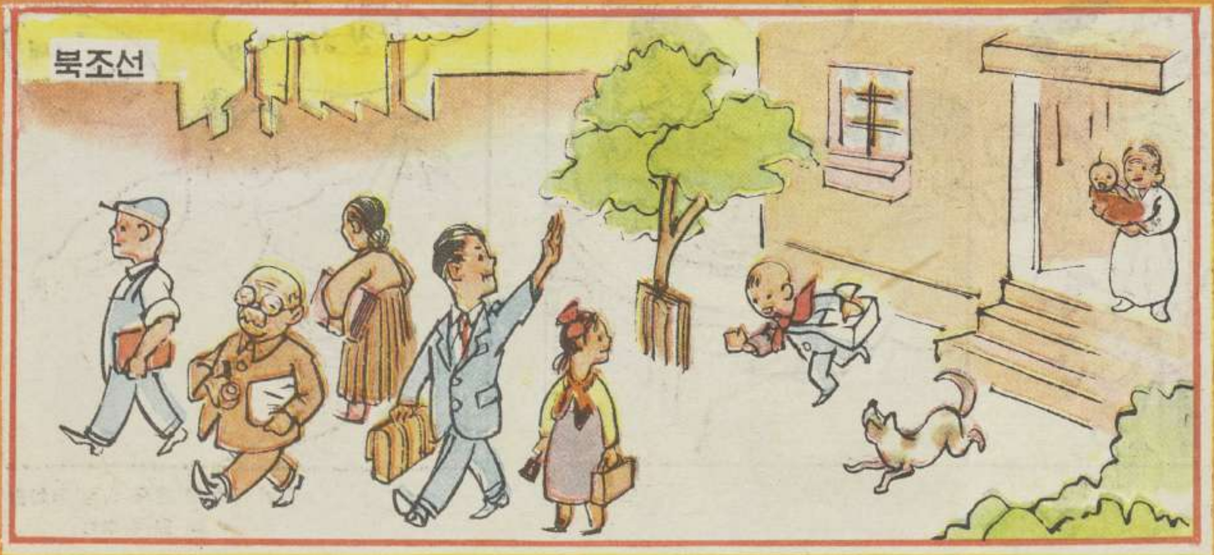
돈 없어 죽는 세상 저주스럽다

생산의 불꽃은

행복의 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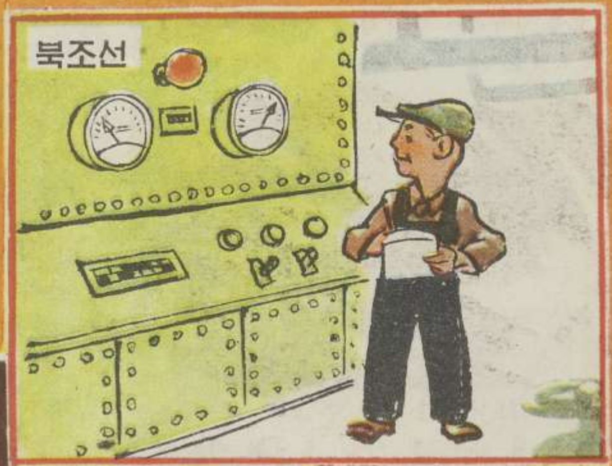
아들—아버지 수업료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그것은 남조선에나 있단다

아들—돈 없이도 공부하는 데는 없나요?
아버지—그것은 북조선에나 있단다



행복한 로동 일가

불행한 실업 일가



감독하는 립장

감독 받는 처지

최 영근 그림

새로 나온 《한-미 사전》

(수정 보충판)

ㄷ.

대한 민국; 1948년에 《건국》한 미국의 동방 식민지. 사람들은 흔히 대환 민국(大患憫國)이라고 부르고 있음

1, 경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남조선 경제를 《절호의 륭성 상태에 놓여 있다》 (1959년 유.엔에 제출한 《정례 보고》 198 폐지 참조)고 평가하였음. 즉 공업 생산은 일제 통치 말기의 절반 이하이고 농촌 경리는 극도로 파탄되였음으로 미국 자본이 마음대로 리윤을 짜낼 수 있는 《절호의 륭성 상태》에 놓여 있음.

2, 인민 생활; 《4천년래의 민생고》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떤 서방 기자가 1958년에 평가한 것이므로 《4천 2년래》라고

정정함.

3, 정치; 대통령 독재 제도. 1952년 《사사 오입》으로 《헌법》을 개악하고 《영구 대통령세》를 만든 후 이번에는 《3.15 정,부통령 선거》까지 날조했으나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 나서 1960년 3~5월 인민들의 화산 같은 분노를 야기시켰음으로 지금 미국 정부는 《유.엔군》 산하 괴뢰 15사를 서울에 진주시키는 한편 《내각 책임제》로 간판을 바꾸어 인민을 극력 《무마》《회유》하고 있는 중.

대한 로총; 즉 남조선의 가장 《권위 있는》 테로 단체. 남조선 인민의 항쟁에 의하여 1960년 4월 27일, 하루 저녁에 산산이 붕괴되였음. 이와 관련하여 《세계 자유 로련》은 《조이를 표하는》 전보를 치려했으나

그 《위원장》 이하 《간부》들이 모두 행방 불명이므로 그를 뉴욕 씨.아이.오 (※ 미국의 반동적 로조)로 보내 왔음.

ㄹ.

리 승만; 전 《대한 민국》의 《대통령》. 현재는…… 이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성략함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면 1960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세계 어떤 신문이건 찾아 보면 일차, 그리고 자세히 알 수 있음).

미국 국무성은 지금 아데나우어 (서부 독일), 기시 노부스께 (일본), 장 개석 (대만), 느고 딘 디엠 (남부 월남), 멘데레스 (토이기), 가르시야 (비률빈), 프랑코 (서반아)의 운명과 리 승만의 운명과의 호상 관

계를 심중히 연구 중인바 이를 위하여 특별 위원회가 조직되고 있음.

ㅁ.

맥코노이; 《대한 민국》 주재 미국 《대사》, 즉 《대한 민국》의 미국 총독.

1, 전직; 반미 활동 조사 위원회 직원. 3

k단(※ 인종주의적 파쑈 단체)의 오랜 단원.

2, 성격; 여우 같이 교활하고 뉴욕 깽패처럼 우지직함.

3, 상벌 관계; 아이젠하워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애지 중지하던 리 승만을 일격에 《하야》시킨 학생 데모를 끝까지 진압시키지 못하였음으로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음. 지금 이 책벌을 벗기 위하여 허 정, 송 요찬 등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맹활동》 중.

민의원; 즉 《대한》의 《국회》. 그의 기능은 돈파 계집과 권욕에 눈이 뒤집힌 정치 브로카들의 밀담소.

만일 서울에 간다면 행인에게 《민의원이 어데 있느냐?》고 함부로 묻지 말 것. 모두 매를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가장 큰 권투장이 어데 있느냐?》 또는 《당신들의 원쑤들이 모여 있는데가 어데냐?》라고 묻는 것이 비교적 안전함.

ㅅ.

송 요찬; 《자유》의 《가장 용감》한 옹호자(《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땅크를 서슴치 않고 사용하는데 이자는 소년과 룩순

로인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음). 출신은 대지주. 일본 군대의 하사관으로부터 장교까지 해 먹은 친일 주구였음. 현재는 《대한 민국》의 《국군 총참모장》이요 《계엄 사령관》이니 미 국방성은 그의 《전공》에 따라 《원수》에로 까지 승급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음.

ㅎ.

허 정; 남조선 《과도 정부》의 《수석 국무위원》. 즉 미국이 내세운 제 2의 리 승만.

1, 전직; 리 승만 정권의 《교통부, 사회부, 장관》 및 《국무 총리 서리》,《한일 회담》의 《수석 대표》 등을 거쳤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중앙 정보국의 《정보원》이라는 사실(그는 《정보원》으로 매달 3천 2백 딸라씩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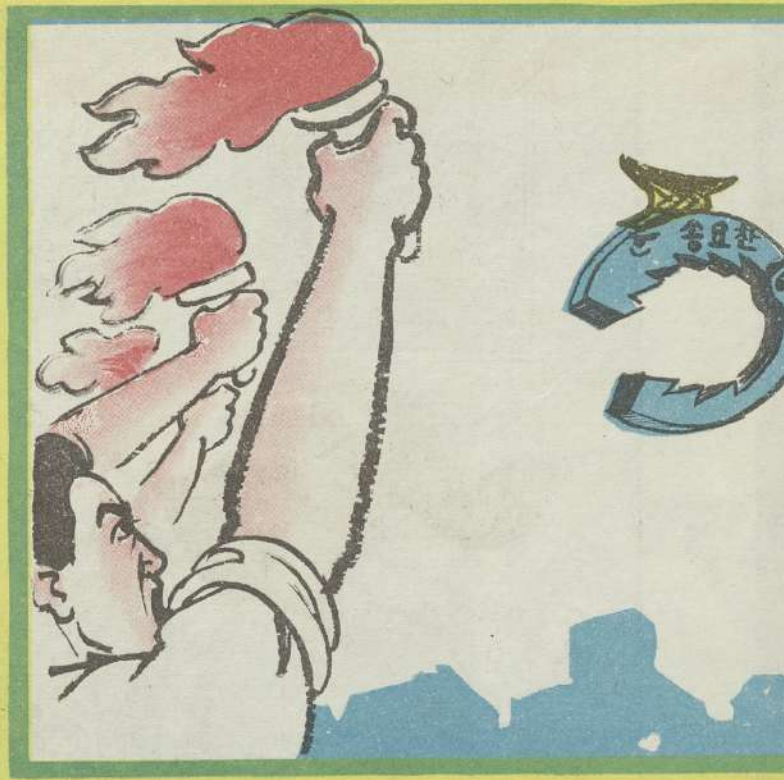
2, 성격; 우둔하고 리 승만보다 폐가 적고 왁살스러운 자. 실례로 1960년 5월 3일에 발표한 《정부 담화》에서 《국정 쇄신》과 《정치 개혁》이라 하여 《과거보다 일층 더 견실하고 확고하게 반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겠다느니 리 승만은 《최고 고문》으로 삼아 놓고 《부정 선거 처벌 대상은 고위 책임자에 국한》 시키겠다느니 《미국 정부의 내정 간섭을 운운하는 자는……리적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등 미국 대사관이 적어 준 지시문 대로 형용사 하나 덧붙이지 않고 내놓음으로써 미국의 립장을 극히 난처하게 만든 일이 있었음.

《썩은 정치 물러 가라!》라는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비추워 미 국무성은 예비로 제 3의 리 승만을 물색중에 있음.

3, 언어 관계; 조선말보다 영어를 더 잘함.

인간 백정—〈계엄 사령관〉

박 승히 그림



인간 백정—송요찬은 남조선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미제가 그를 〈계엄 사령관〉으로 내세운 이래 그는 시위 군중에게로 땅크를 내몰고 닥치는 대로 총탄을 퍼부어 천여명의 살상자를 낸 뒤에도 련일 위협 공갈을 거듭하고 있는바 이 반역자의 말로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지난날의 력사가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다.

허 정 일당·은 시위 군중을 학살한 괴뢰 경찰을 처벌할 대신에 도리여 그들을 높은 자리에 등용하고 있다.

인민에게는 원쑤

미제에게는 충견

미제의 새로운 주구

—말을 잘 듣게 하려면 평소의 훈련이 제일이야…

까마귀 열두 가지 소리에 한마디도 쓸 소리 없다

미제의 괴뢰인 허 정 일당은 리 승만 파쑈 테로 통치 기구에 대하여는 손'가락 하나 다치려 하지 않으면서 《정치 개혁》 이니 뭐니 하고 날도깨비 같은 소리를 쥐여 치고 있다.

박 승히 그림

—간판을 보시고 박수를 보내시라!

그놈이 그놈

송 시엽 그림

리 승만이 꺼꾸러진 그 자리에 모여든 허 정 일당은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이민을 적극 추진> 시키겠다고 떠버린 후 명년에 2,000명을 브라질로 보낼 작정이라고 파렴치한 수작을 뻔뻔스럽게 늘어 놓았다.

빠져 들어 가기만 하는 정책

홍 종호 그림

매국노의 마지막 날

오 흥택

죽은 후에도 관속에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악착하게 붓들고 늘어지든 식민지 《대통령》 감투를 벗기운 것도 볼만한 꼴이지만, 12년간이나 둥지를 틀고 뻗치던 이른바 《대통령관저 경무대》에서 쫓겨난 것도 가관이 겠다.

《역적 리 승만을 타도하라!》는 수십만 군중의 웨침에 혼비 백산하여 하수도 구멍에 꽁지를 틀어 박고 벌벌 떤 것은 그래도 아직 괜찮은 편이였고 인민들의 호주머니를 악착스럽게 털어 세운 리 승만의 《동상》 모가지를 항쟁자들이 쇠고랑으로 묶어 서울 거리를 끌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직 붙어 있는 제목을 움켜 쥐고 엉엉 소리까지 질렀겠다.

《어엉,엉,비서 없는냐》

《네 여게 있습네다》

《여게가 어데냐,비서!비서》

《하수도 구멍에 있습네다.》

《아니 비서가 나보다 먼저 하수도 구멍에 들어 왔어, 엉》

《네네, 제가 안내했습죠 이쪽으로 썩 들어 옵죠》

《임아 그래 대통령을 이런 델 안내하는냐 엉,엉》

《각하 그럼 저게 나갈까요.》

《이판에 나가긴 어델 나가. 엉,엉, 비서, 비서, 근데 저자들이 뭐라구 웨치는거냐》

《네, 리 승만 물러 가라고 합죠.》

《아이유 하나님 물러 갔다고 일러라.》

《어데로 물러 갔다고 말하랍니까》

《이렇게 물러 서지 않았니,아이유 하나님》

《하수도 구멍으로 물러 갔다고 할까요》

《비서, 임아 너까지도 놀려 대는거냐 대통령 자릴 물러 섰다고 해라. 빨리 좀 말해라.》

《각하 전달하고 오겠는뎁죠 나갈 수가 있어야죠》

《아이유 하나님 네가 먼저 들어 와서 이 성화냐》

《각하 잠간 나가셨다가 제가 나간 후에 다시 들어 오시죠》

《임아 날 죽인다구 저 야단인데 어델 나가,아이유 경찰과 군대놈들은 뭘하는거냐.》

《경찰과 군대보다 더 많은 군중이 들고 일어 섰습니다.》

《총 가진 놈들이 그걸 처리 못하느냐!》

《경찰 무기고를 습격하고 그놈들이 무장을 했습죠》

《뭐 뭐 아이유, 하나님,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뭘하구 있는거냐》

《미국 대사관에 몇번 전활 걸어도 도무지 나오질 않습니다. 역시 하수도 구멍에라도 들어 가지 않았는지요.》

리 승만이 이렇게 비서와 수작을 하고 있을 때 《경무대 경무관》이 찾아 들었다.

《각하—》

《임아 각하구 뭐구 너까지 이 구멍으루 들어 오면 어떻거는거냐》

《각하,군중들이 각하를 나오라고 합니다》

《날 나오라구. 아이유 하나님—늙어서 못나간다구 전해라》

《각하 안부를 물으려 찾아 온게 아닙니다》

《임아 그걸 몰라 그러니, 죽인다니 어떻게 나가겠니. 못나간다구 그래라》

《벌써 그렇게 말했는데 나올 때까지 뻗치겠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못나간다. 못나가 … 근데 애리스는 어데 갔느냐, 아이유 애리스, 애리스.》

《각하, 마님께서는 미국 고문 령감허구 저쪽 하수도 구멍에 박혔습니다》

리 승만이가 이렇게 꽁지 대가리를 하수도 구멍에 틀어 박고 벌벌 떨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이튿날 아침—밤잠을 이루지 못한 리 승만은 눈이 벌개서 떨고만 있는 판에 비서가 찾아 왔다.

《각하 리 기붕 일가가 자살했습니다》

《뭐 그놈이 나보다 먼저 죽었단 말이냐. 근데 내 아들놈은 어떻게 됐는냐.》

《아드님이라니요?》

《리 강석이 말이다. 리 강석》

《네, 리 강석군도 제 어미 아비 곁에서 함께 자살했습니다》

《리 강석의 애비가 누구냐.》

《진짜 애비는 리 기붕 령감이구 양부가 각합죠》 애리스허구 노는 판에 아들 하나두 없게 된 리 승만이가 양아들로 리 기붕의 아들 리 강석을 《입적》시켰는데 그놈까지도 제아비하구 죽었다는 소식이다.

《비서 그럼 내게 누가 남았느냐》

《딸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 스마티,스마티—》 리 승만이 절망적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발밑에서 개 한마리가 꼬리를 치고 있었다. 미국 상전으로부터 선사 받은 스마티라고 이름 지은 리 승만의 《양딸》이다.

모든 것에서 버림을 받은 리 승만은 개를 끌어 안았다. 《과연 네 충성심이야 말로 변함이 없구나》하고 뇌까리는데 개는 리 승만의 볼을 핥고 있었다. 요 며칠채 빵조각 하나 얻어 못먹은 개—스마티는 쪼굴쪼굴한 리 승만의 볼을 흘러 내리는 눈물에서 염분기를 맛보고 구미가 돌아난 것이다.

뒤엎자!

김 명섭 그림

조 병조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 맥코노이는 자기 집에서 연회를 차리였다. 여기에는 이른바 《파도 내각》의 두목인 허 정이와 《주한 미 경제 협조처》 모이어란 놈도 초대되였다.

맥코노이는 교활한 눈깔을 굴리면서 술'잔을 들고

《허 선생! 우리 미국은 이번 한국 사태에 대해서 매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네다. 우리 미국은 유엔 연단을 통해 한국에는 자유가 있고 리 승만 정부가 민주 정치를 잘 한다고 많이 선전해 왔습네다. 그런데 리 승만 박사는 한국 백성들에 의해 몰려 났고 한국은 지금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져 있소. 우리 미국의 망신은 이만 저만이 아닙네다.》

《대사 각하! 이루 할 말이 없습네다…》

《허 선생! 지금도 늦지 않습네다. 빨리 질서를 회복해야 하겠습네다. 사태가 더 발전하면 재미 없습네다. 내가 오늘 밤 당신을 초청한 것도 목적은 여기에 있습네다.

허 선생! 당신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감사합니다.》

교활하고 독살스럽게 생겨 먹은 맥코노이가 자기 앞에서 요사스럽게 꼬리를 흔드는 허 정이에게 《축배》를 권하였다.

바로 이 때였다.

갑자기 바깥에서 《학생들이 흘린 피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라!》, 《썩은 국회 해산하라!》는 군중들의 웨침이 련달아 들려 왔다.

이에 질겁한 허 정은 어찌나 바빴든지 맥코노이에게서 받아 든 술'잔을 동댕이치면서 책상 밑에 대가리를 틀어 박았다. 맥코노이와 모이어 역시 불 맞은 승냥이처럼 어쩔줄을 몰라 빙빙 돌아 쳤다. 그러다가 맥코노이는 전화기를 들었다.

《계엄 사령부입네까! 여기는 미국 대사관입네다. 송 참모장! 또 시위가 벌어졌습네다. 우리 대사관 앞에서 말입네다……빨리 빨리 헌병을 푸시오… 탄압하시오…》

맥코노이는 호통치다싶이 괴뢰 《계엄 사령부》에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허선생! 그게 무슨 꼴입네까? 일어나시오》

《대대사 각하! 죄송합니다. 나는 또 그무지한 놈들이 돌질을 하는줄 알고…》

《허 선생! 사태는 점점 악화되여 갑네다.

빨리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네다. 우리 미국은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원할 것입네다. 그것은 한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필요합네다…》

이리하여 이날밤 소위 《연회》 석상에서는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 맥코노이와 허 정간에 미국이 《한국을 협조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이 조작되여 다음날 공포되였다.

아메리카 승냥이들은

《계엄 사령부》를 인민 탄압에 계속 내몰며 《파도 정부》로 하여금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더욱 충실히 집행케 하는 한편 소위 《질서 회복》이란 구실 밑에 괴뢰 《경찰》을 재 수습하는 데 착수했다.

며칠이 지나서 맥코노이는 허 정을 청해다가 물었다.

《허 선생! 경찰들의 재 수습은 어떻게 되였습네까?》

《네!? 일이 잘 돼 가옵지요. 대사 각하의 지령대로 경찰 간부에는 시위를 탄압하는데 공로를 세운 자들로 모조리 등용하였습다. 그런데 대사 각하! 한 가지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위 군중들에게 얻어맞고 뿔뿔이 흩어졌던 경찰놈들이 모두 다시는 경찰 노릇을 안해 먹겠다고 나가 자빠져서…》

《선전하시오. 우리 미국에서 한국 경찰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인 경찰 전문가도 배속시키며 또 한국 경찰을 위해 우리 미국이 17만 6천 딸라를 또다시 할당하였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는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때였다. 갑자기 시내에서 콩 볶듯한 총소리와 함께 노기찬 군중들의 웨침 소리가 시내를 뒤흔들었다.

진짜 고지서

홍 종호 그림

토이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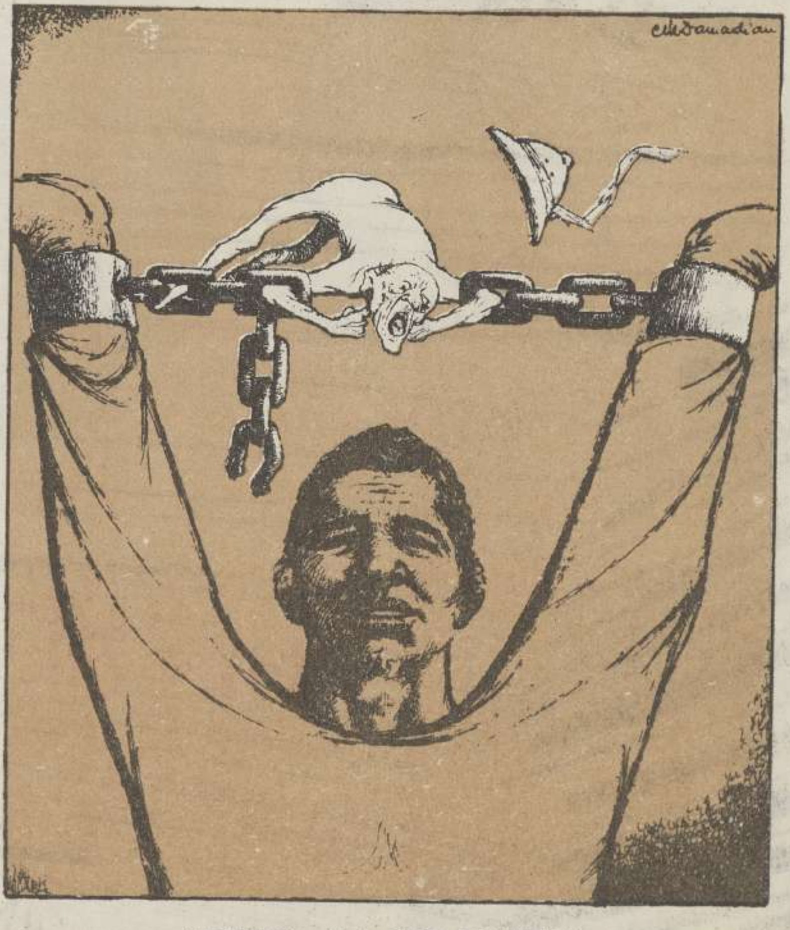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박 승히 그림

동쪽에서 넘어지고 서쪽에서 기울어 진다

중국 "인민일보" 에서 전재

영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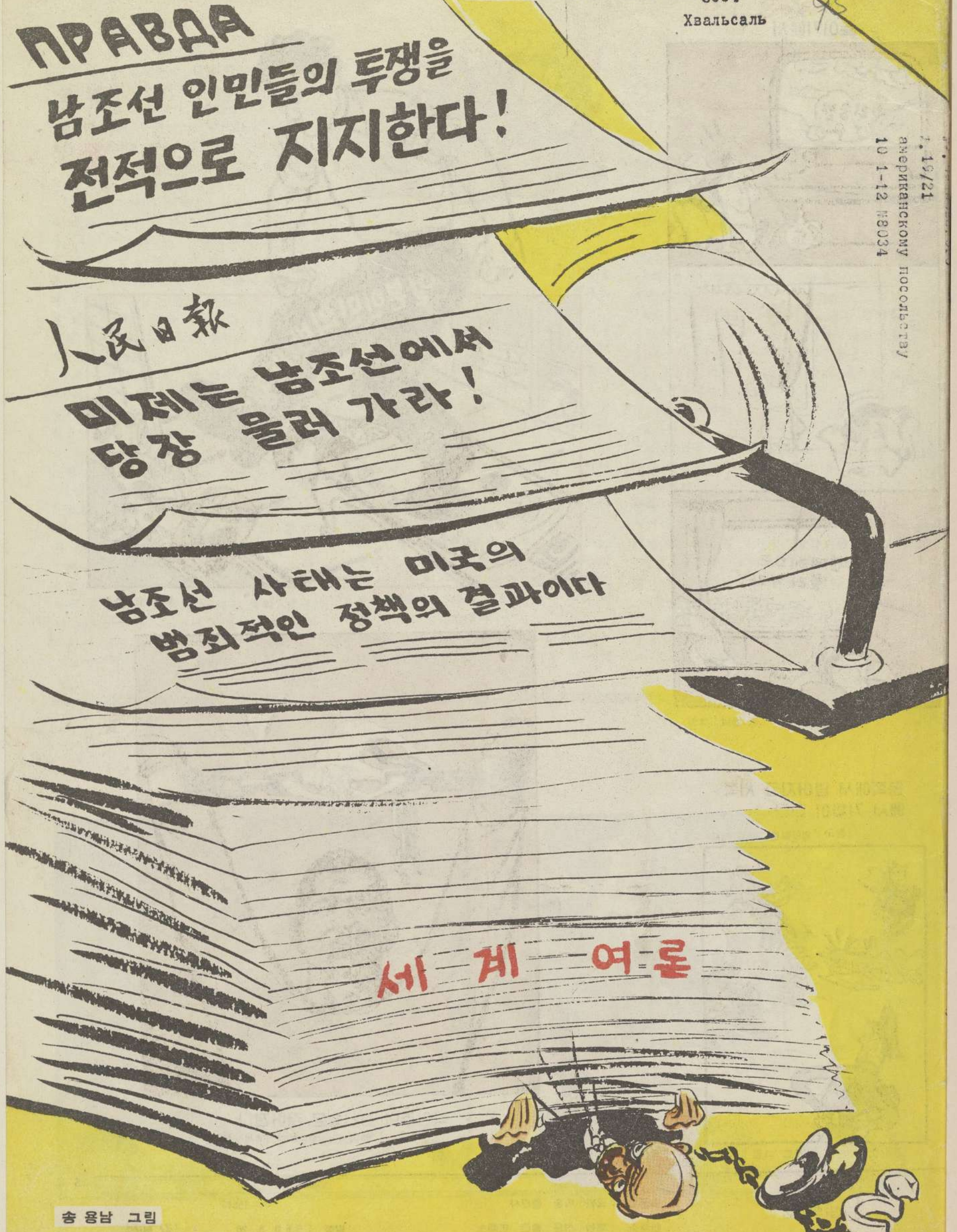
식민주의 쇠사슬은 끊어진다

루마니아 《우드지까》지에서 전재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ㄱ—15510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60. 5. 20 (값 40전)

세계의 선량한 량심 앞에서

8034
Хвальсаль
95
.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034



송 용남 그림